



5·18 당시 시민군으로 알려진 '김군'을 기리기 위해 광주공원에 설립된 동상. /김애리기자

광주공원 ‘5·18 시민군 김군 동상’ 이전 논란

지난 5월 설치…추진위측 “상징적 공간, 존치해야”
市 “고증 필요…남구 추모공원 조성시 이전 검토”

5·18 당시 시민군으로 알려진 ‘김군’을 기리기 위해 광주공원에 설립된 동상이 건립 당시부터 철거 논란을 겪은 가운데, 동상 이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공원의 상징적 의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행정상 불법설치물이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김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시민군 ‘김군’과 계엄군에 맞서 산화한 시민군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공원에 김군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현재 김군 동상은 광주공원 주차장에서 시민회관으로 오르는 계단 왼편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제막식 전날 광주시로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요청을 받았다. 추진위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광주시와 남구에 설치 제안서를 보냈지만, 여러 관계 부서가 담당이 아니라며 이첩을 받

북, 제막일까지도 행정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상 설치 이후 철거 논란이 불거지자 광주시는 5·18 사적지인 남구 송하동 ‘광목간 양민 학살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내부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진위측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정작 동상 건립 당사자는 제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진수 추진위 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김군 동상 건립 추진을 진행해 왔으나 행정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제와서 동상 건립을 추진했던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전 논의가 이뤄진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이어 “첫 제안서를 냈던 남구청에서 공원이라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에 시민군 첫 관성지였던 광주공원의 상징성과 설치 장소에 맞춰 동상을 제작하고 세웠다”면서 “이전은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건립 당사자를 제외한 이전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김군 동상은 설치 당시 문제가 불거져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5·18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협의는 이뤄졌고, 시민군으로 알려진 김군에 대한 고증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구에서 예산을 세워 양민학살이 일어났던 곳에 대한 진상 여부가 명확

해지면, 추모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한다”면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 설치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군 동상이 설치된 광주공원은 의병항거에서부터 반독재 저항까지 역사적 상징 공간인 만큼 그대로 존치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광주의 의로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은 역사와식 고취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설치는 지양해야 하나 민간에 의해 세워진 상징물이더라도 그 의미를 고려해 행정당국은 보존과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송지기자

추석 대목 위조지폐 주의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양동시장 상인이 손님으로부터 만원권 위조지폐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에서는 이달 19일에도 복구 한 만화방에서 오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사용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오송지기자

고층아파트 불…아기·여성 대피

23일 오후 2시20분께 광양시 중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났으며 집 안에 있던 아기와 여성 1명은 베란다 비상공간을 이용해 옆 세대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허선식기자



소방안전교육도 비대면 23일 오전 광주동부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외국인 통역 보조강사가 원격 화상을 이용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여성 20명이 교육에 참여해 영어 심폐소생술, 위급상황 시 119 신고 요령,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등을 익혔다. /광주동부소방서 제공

“허재호, 재판 출석 노력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경고…지난해 8월 첫 재판이후 한차례도 출석안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오는 10월 재판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씨의 5차 공판이 형사1

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지난해 8월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심장 질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달 18일 입국하겠다고 의사를 나타냈지만 지방 약화로 비행기에 타지 못했다고며 병세가 호전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들어오

겠다고 주장했다. 허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계속 입국을 요청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한국에 좀 더 늦게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 측이 입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 서류인 항공권 구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며 다음 기일 재판 출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들어온다고 코로나1

9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대라면 입국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허씨의 다음 재판은 10월28일 오전 11시15분 같은 법정서 열린다. /오송지기자

내달 5일 전두환 공판…방청인원 제한

오는 10월 열리는 전두환(89)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 방청 인원이 코로나19로 제한된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 인원을 총 50명 이하로 줄였다. 해당 법정의 방청 규모는 애초 피해자 가족과 취재진 등 우선 배정석 38석, 일반 방청석 65석이었으나 지난 4월부터 일반 방청석을 줄였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재판에 이어 10월 재판에서도 우선 배정석 20석, 일반 방

청석을 15석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신청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탐장급 조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8년 5월 기소 후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이르면 올 연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송지기자

북부경찰, 지자체와 ‘희망 브릿지 프로젝트’ 진행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북구청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희망 브릿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각지대를 찾아 나선 경찰은 북구청을 통하거나, 푸드뱅크 단체 7곳과 연계해 추가 지원대상을 발굴했다. 학대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

적 약자인 위기 가정 5곳을 선정해 1년간 1일 2만7천원 상당의 푸드 지원과 심리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권영만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체 주거지원과 교육지원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기자

“문안 열어주길래…”

○…남의 원룸 건물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이 건물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다 경찰서행.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9)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서구

광천동의 한 원룸 건물 통로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A씨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며 “다른 입주민과 경찰관의 퇴거 요구까지 거부한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설명. /최명진기자

금매전문

이런 매물있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커피숍 할곳(광주시내) = 현금 5억내외

○빌딩10억 = 주차5대, 사무실1개층 사용해야함

○병원자리 = 현금27억 아파트밀집지역

○현금50억빌딩 = 월세7%내외

현재 임대80%이상된 빌딩

○전,답,농경지 = 장성남면, 화순, 담양, 광주변두리 투자현금6억 - 10억(대토용)

***중흥동, 유동, 신안동, 임동, 동운동, 지산동

관내물건은 종류 구분없이 적극처리합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370-1900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금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

CMYK